

【서평】

경계에서의 대화

남북한 작가의 공동 소설집

윤후명 외 12명, 『국경을 넘는 그림자』, 서울: 예옥, 2015.

이경자 외 12명, 『금덩이 이야기』, 서울: 예옥, 2017.

윤보영 (동국대학교)

경계의 출구에 선 미학

서로에게 가장 멀고, 또 가장 가까운 존재.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한민족이라 교합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둔 채 경계한다. 판문점을 넘어 상처 입고 남한에 온 사람에게 우리는 적에게 굴복하고 순종한 귀순병사라 지칭한다. 한민족인 동시에 적인 존재와 마주하고 살아가는 일상은 평화와 긴장이라는 두 조화되지 않는 시간과의 분투이다. 이 사이를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온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와 상관없이 남한 사람이자 북한사람이라는 자신과 타인의 생각, 남한과 북한 경계라는 그 조화되지 않는 공간 사이를 오고간다. 남한주민 역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러 감정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남한과 북한 사이 경계에 서있다. 두 권의 소설은 남북한 작가가 같은 자리에서 북한에서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계 사이에 같이 서는 것이다. 때론 관찰자의 시선으로 때론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

로 남한과 북한의 작가는 대화한다. 경계를 드러냄으로써 경계를 허물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와 타인을 교차하며 결국 모두가 나였음을 통찰한다. 분단시대 문학이 먼저 선 탈경계시대이다.

의무로서의 재현: 속죄

우리가 누군가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
우리의 어휘는 혼란에 빠지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만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타인과 반드시 공유하는 성질을 애써 묘사하게 된다.
우리는 유형 또는 이 단어의 옛 의미인 '성격'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특별한 유일성을 놓쳐버린다.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어린왕자가 여섯 번째 혹성에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서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지리학자이다. 지리학자는 자신의 서재로 찾아온 탐험가들의 기억을 기록한다. 기억이 흥미로우면 그것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위해 탐험가의 도덕성을 조사하고 도덕성이 괜찮으면 지리학자는 탐험가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흥미로운 기억을 연구한다. 지리학자가 연구한 지리는 도덕성 있게 실재를 구현했을까?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을 집요하게 묻고 상상하며 그들의 삶에 다가간다. 인간 나를 무엇으로, 혹은 북한을 들여다 볼 도구로 연구와 방송, 문학에 소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넌더리가 날지 알면서도 거둬들여 파고든다. 그러나 나도 모르겠는 내 인생을 선불리 이해한다는 것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다(나도 모른다). 이불을 덮고 송장처럼 누워있는 아버지를 두고 강을 건넌 소녀는 남한에 왔다고 그 고통이 끝났겠는가(나는, 미안합니다). 되짚어 우리의 삶은 누추하지 않은가? 평범한 가

정에서 할 수 있는 배움을 다했고 안정적인 삶에 진입한 남한사람도 도태되곤 한다. 나락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을 내 삶의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주저하는 우리는 아직 멀었다(어디까지 왔나). 경쟁상대가 되는 순간 일자리도 모자라는데 온 감당치 못할 짐으로 느끼며(중량초과) 북한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성하고도 불길한 이미지로 대할 뿐이다(네 개의 이름). 소설은 아픈 속내를 지독히도 따라가 북한의 가장자리에서 온 이들을 나 역시 두터운 장벽으로 밀어내고 있음을 깨달으며 통곡한다(조선족 소녀). 감히 타인의 인생을 이해한다며 무림없이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자만이며 오만인가. 그것이 주는 수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복기하며 무릎을 꿇고 그들의 통각과 마주한다(나도 모른다).

우울함에서 걷어 올리는 추억: 정화

버리고 도망 온 사람이라는 명에는 자꾸만 북한에서의 삶을 돌이켜 재현함으로써 내가 왜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곰곰이 변명하게 한다. 나는 왜 여기에 왔나? 남겨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남의 일처럼 여기는 백성은 삼대를 쳐 죽여도 무방한 역적으로 몰리는 북한에 홀랑 남겨진 가족들은 황황할 것이며 역적의 가족인 죄로 망그러질 것이다(소원). 추억 속의 북한은 누구나 같은 형편으로 어울려 살던 곳이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모두가 알뜰하고 검박하게 사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도덕이었던 규칙과 질서는 그러나 기나긴 배고픔 앞에 분쇄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양심에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주민이 즉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 아니다(불륜의 향기). 영하 사십 도를 오르내리는 백두산 흑한 속 철길공사에 열여덟 어린 청년은 나무에 깔려 가슴 한가

운데 구멍이 뻥한 채 죽었다. 먹지 못해 못자란 청년에게 주어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물은 세 명이 돌아가며 한 입씩 먹어야 하는 사과이다. 얼마나 잔혹한 선물인가(잔혹한 선물). 뼈에 가죽만 남은 아이들을 아편 밭으로 내몰아도 식량은 해결되지 않는다(밥). 순진하게 눈만 덩그러니 뜨고 있다간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걸 터득한 사람은 그 안에서 강도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방도를 찾지만 청대 같은 군인조차 허무하도록 쉽게 죽는다(제대군인).

고난의 행군 이전에 어른이 된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상을 꿈꾸며 나의 노력이 그에 이바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꿈꾸었을 것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동체에 헌신하는 도덕을 규범으로 배웠던 북한에서의 나의 삶과 거기에 쏟은 열정까지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다만 비참하고 가난한 것으로, 자신이 해온 일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그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온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도 더 이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곳에도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고 신념이었던 도덕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해야 할 곳으로 지정된 북한에 대한 경멸에 작가는 회상과 성찰을 통해 그계 다가 아니라는 고집스러운 반항을 시도한다. 슬프지만 재미있는 해학을 곁들여 북한에 대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다.

당사상전선 전초병으로 그 위세가 대단했던 작가동맹 작가도 금서를 감춰두고 읽으며 일탈한다. 중국산 고량주를 꺼내 마시며 인생 뭐 있나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다 싫다 친구와 부르는 노래는 옆집 강아지도 따라 부른다. 궁상맞게 토끼를 들고 출퇴근하는 작가동맹위원장의 책을 몽땅 훔쳐 장마당에 내다판 도둑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아내이고, 허울만 좋은 돈키호테가 된 작가들은 굶어죽느니 팔길

잘했다며 세상이 개판이 되었음에 킬킬댄다(책 도둑). 암전하고 교양 있는 처녀라는 평판 따위는 집어치우고 아버지뻘 간부와 가책 없는 관계맺음을 시작으로 성과 권력 그리고 자본주의를 몸으로 배워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는 어차피 인간 세상에 항상 흘러넘쳤던 부도덕이 마치 북한에만 일어나는 듯 호들갑 하는 우리에게 북한의 시장경제를 주도해나가는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과 공존하는지를 보여준다(진옥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작가가 향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북한의 삶에 바짝 다가서 민낯을 미련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루한 고집마저 해학을 곁들여 현실성을 더해준다. 악착같은 장마당에서도 “네 눈에 저 애가 남은 게 있으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게 안 보여? 절반이나 남은 국수를 애가 보는 앞에서 쏟아버려? 이 염통이 똥구렁에 붙은 것아!” 국수장수 아주머니는 자기가 판 국수를 먹다 버린 여자에게 그곳 방식의 도덕으로 악다구니를 한다(꽃망울). 어둡고 가난한 곳이라는 편견에 북한에 억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도 곁에서 배 굶는 사람에 대한 도덕이 있고, 친구가 있고, 몰래 금서를 읽으며, 누군가를 좋아하고, 꿈을 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설이 보여주는 북한주민의 삶은 그것을 통해 북한사회를 드러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일 뿐인 그곳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정화한다. 가차 없고 악의도 없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터득해나가는 주민은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해학을 곁들여 그리는 동시에 풍자의 칼끝은 위정자에 겨눈다. 남한에 온 초기 이들은 북한의 일상을 희극적으로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비극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회한과 한탄이 비판을 품은 해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지나 과거에 거리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한 번도 가난해본 적이 없었던 듯,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를 세운 듯 가장 가까이에서 서서 거꾸로 든 망원경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남한사회에 대한 조소도 담겨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서재에 갇혀서 마치 거꾸로 든 망원경이 현미경이라도 되는 냥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양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이런 시도는 과거를 극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학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게 해준다.

나이며 타자인 우리

여든 넷, 부지깽이로도 못 쓸 몸을 하고서 돌아온 국군포로는 동료들 밀고하며 살아남은 자신에게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살아남은 것을 부끄러워 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자기 영혼의 사면보다. 그 신성하다는 자유보다. 공포와 모욕과 체념의 한평생을 자신에게 강제한 이들의 면상에 먼저 침을 뱉고 싶다. 그리고 묻는다. 왜 북쪽의 당신들은 우리들을 보내주지 않았는가. 왜 우리를 가혹하게 대했는가. 왜 남쪽의 당신들은 우리를 찾지 않았는가. 왜 우리를 버리고, 또 외면했는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묻는 것이다(유월의 신부).

폴란드 비자를 받기 위해 러시아의 기차역을 서성이다 북한으로부터 도망하는 남녀를 만난 누군가는 그들의 열차표를 대신 사준다. 그리고 부르튼 발로 국경을 넘고 있을 그들의 걸음이 자유를 얻은 순례의 길임을 성찰하며 안부를 묻는다. 바닷가 산모퉁잇길에서 피난 배를 기다리며 서있던 어린 자신은 전쟁이 끝난 지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코를 훌쩍이며 기다리고 있다. 지나온 어느 날 무엇을 나는 잘못했을까. 나는 살아남았지만 죽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지 않다. 차마 토로하지 못할 마음 한쪽 금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진 것이라 쉽게 이야기 하지만 자유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

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여권도 비자도 없이 국경을 넘은 남녀는 국경을 넘음으로써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여권이 있는 자신은 비자를 얻지 못해 국경을 넘지 못했듯 산모통잇길에 여전히 서성이고 있다. 우리가 견뎌온 남한에서의 굴곡진 세월은 얼마나 많은 금기를 안고 있는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남한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안에 여전히 금기를 안고 있으며 아직 충분히 자유롭지 않다. 결국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은 북한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사념 안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이다(핀란드역의 소녀).

큰 산에 겹겹으로 둘러싸여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삼수갑산은 미움이 깊이 박힌 사람을 내치는 곳이다. 문단을 등지고 삼수갑산에서 노년을 보낸 백석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백석은 교예단 공연에서 와인잔 가득한 쟁반을 칼끝에 얹은 채 그네의 발판 위에 거꾸로 매달린 배우를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칼끝에 온 정신을 모으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저 여자의 세계를 침범치 못하리라. 그럴 것이다. 저 놀라운 연기의 순간만큼은 수령이나 체제 아니라 그 어떤 위압적인 힘도 여자의 마음속을 헤집어놓을 수 없다. 누구도, 그 무엇도 한 인간을, 완전히, 끝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방민호는 백석의 마지막 작품 이솝우화의 한 구절 “귀중하면서도 나쁜 혀”란 실상 자기 자신의 글을 가리켜서 쓴 말이었다고 해석하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지 못한 고통을 짚어낸다. 그것은 무력한 침묵이 아니다. 때로는 말없이 긴 시간을 버텨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침묵이 더 위험할 때도 있다. 백석은 더 이상 글을 쓰지도, 발표하지도 않는 침묵을 통해 누구로 부터의 침범도 받지 않고 나아가는 문학의 길을 간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 침묵을 통해 나아가 문학의 길을 작가는 백석과 자신을 교차하고 시공간을 모험함으로써 그와 공감한다(삼수갑산).

관중석에서 이 트레이너가 북한선수 쪽으로 뛰어가는 걸 보는데
속에서 뭔가 몽클한 게 올라오더라.
나중에는 관중석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전부 울면서 북한선수를 응원했다.
-「국제정구대회서 北선수 쓰러지자 맨 먼저 달려간 사람은」

《동아일보》, 2017.7.5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선수에게는 함께 온 트레이너가 없다. 코트에 주저앉은 그에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남한대표팀의 트레이너이다. 그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선수를 돌봤다. 남한선수들은 울면서 북한선수를 응원했다. 왜일까? 남한과 북한, 우리는 대체 서로에게 누구인가?

고통 받는 이웃을 지켜보는 내가 상처 받는 까닭은 나의 감성이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행복을 주는 것처럼 고통 받는 이웃의 가슴을 파고드는 울음 역시 내 감성에 상처를 준다. 나에게 온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 남한과 북한, 우리의 고통이 모두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¹⁾ 험벗고 고통 받으며 우리 곁에 스며든 그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곧 나의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다가가 묻고 또 묻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한다. 국적이 한 때 주었던 권리와 보호를 상실하고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최소한의 사실 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역시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였음을 증명한다. 북한에도 엄연한 사적세계가 있음을 깊이 불신하며, 북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몽뚱그려 북한 전체에 깊은 적개심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에 영구적

1) 서동욱은 프로이트와 들뢰즈, 레비나스, 프로슬, 바르트, 베르로 폰티를 테마로 타인의 고통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서동욱, 『차이와 타자』(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인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실존을 넘어선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 충분히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가? 그 어디에 있던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누군가 그것을 상실하고 고통 받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문제이다. 방관하는 스스로를 상처주고, 인간 본성 자체를 위협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²⁾

남한과 북한이라는 경계 그 사이에서 소설은 대화하며 서로를 비춘다.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거울 앞에 도저히 남이 아닌 서로를 발견하고 호두처럼 딱딱한 경계에 가두고, 갇혀 있는 것이 누구도 아닌 모두 나임을 통찰한다. 이제 경계 밖으로 나설 시간이다.

윤보영(Yoon, Bo Young)

윤보영은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경계적 실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2015), “경계/탈경계의 단계별 유형화를 위한 시도: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 연구”(2016),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미래”(2017) 등이 있다.

2) 한나 아렌트 참조,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51),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서울: 한길사, 2017).